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의사에 관한 연구

곽 인 숙(우석대학교 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1960년대에 52.4세였으나 2006년 79.1세로 OECD국가의 평균수명인 78.9세를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인들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최근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거주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부양이나 보호가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노화에 따른 신체적, 감각적, 생리적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약화로 일상생활동작 능력의 저하됨으로써 노인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이 약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다. 또한 혼자된 노인이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물리적인 결함에 의해 주택내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주거환경은 더 이상 안전한 주거공간의 역할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으로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www. familycareamerica.com, 2007) 현실적으로 부모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이 자신이 익숙한 환경인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면서 생활이 가능해지므로 시설입소를 늦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사회부양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아 노인의 주택내 사고발생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보완해줄 수 있는 주택의 개조는 노인의 안전성과 독립성을 높여 주고, 사고발생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3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부실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343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조사기간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주거공간의 개조의사에 관한 내용과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주거관련변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형태, 가족수, 월평균 가계총소득 등을 포함하였으며, 주거공간적 특성으로는 거주지역, 주택형태, 주택소유, 주택의 건축년도, 주택내에서의 사고경험 유무, 주택개조 경험 유무, 거주지속년수를 포함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08년 4월 4일부터 2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이므로 조사원이 질문지에 의거하여 직접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구했으며, 개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47.2%였으며, 여성은 52.8%였다. 연령은 65-69세가 가장 많아 37.6%, 70-74세는 35.9%, 75-79세는 15.4%, 80세 이상은 11.1%였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금 건강하지 못하지만 보조기구 사용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30.9%, 일상적 행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7.0%,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2.6%로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4.6%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5.4%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중 반정도(51.7%)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나 미화원과 같은 소득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0.4%로 절반정도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비교적 젊은 71.6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도 16.9%였으며, 중학교졸업이 16.6%로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거주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인 1인 가구가 26.2%로 많았으며, 노인 1인과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25.1%, 노인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는 가장 적은 18.1%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노인끼리 생활하는 노인부부가구의 형태로

생활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자녀와 합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의 가족수는 1명에서부터 최고 8명까지였으며, 평균가족수는 2.64명으로 전국평균가족수 3.38명(2007년 통계청)보다 적고, 월평균가계소득은 153만원으로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인 376만원(2007년 통계청)에 비하면 평균소득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43)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성	162	47.2
	여 성	181	52.8
연 령	65~69세	129	37.6
	70~74세	123	35.9
	75~79세	63	15.4
	80세 이상	38	11.1
건강상태	건강하며 독립적인 생활가능	204	59.5
	건강하지 않지만 독립생활가능	106	30.9
	일상적 행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	24	7.0
	거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활	9	2.6
직업유무	직업무	256	74.6
	직업유	87	25.4
배우자유무	배우자무	173	50.4
	배우자유	170	49.6
교육수준	무 학	58	16.9
	초등학교졸	135	39.4
	중학교졸	57	16.6
	고등학교졸	54	15.7
	전문대이상	39	11.4
거주형태	노인 1인 가구	90	26.2
	노인부부 가구	105	30.6
	노인부부+자녀 동거가구	62	18.1
	노인 1인+자녀 동거가구	86	25.1
		평 균	표준편차
가족수(명)		2.64	1.57
월평균 총가계소득(만원)		153.79	153.38
연 령		71.62	5.43

2. 조사대상자의 주거공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읍면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37.0%, 서울 및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21.3%였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4.5%,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15.7%였다. 주택의 소유상태는 조사대상자나 배우자의 소유인 경우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 소유가 21.1%였다. 전세는 8.1%, 무상임대가 3.9%, 사글세가 3.3%, 보증부 월세가 2.1%로 임차인 경우가 17.5%였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건축연도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 23.0%, 1980년대에 지어진 것이 22.8%,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19.2%로 주택경년이 높아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개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짧은 경우 수개월에서부터 최장 80년까지였으며, 평균거주지속년수는 17.48년으로 도시의 평균거주기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공간적 특성

(N=343)

		빈 도	백분율
거주지역	읍면동지역	127	37.0
	중소도시	143	41.7
	대도시	73	21.3
주택형태	단독주택	198	57.7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54	15.7
	아파트	84	24.5
	기 타	7	2.0
주택소유	본인/배우자 소유	204	61.4
	자녀 소유	70	21.1
	전 세	27	8.1
	보증부 월세	7	2.1
	사글세	11	3.3
	무상임대	13	3.9
주택의 건축연도	1980년 이전	79	23.0
	1980년대	78	22.8
	1990년대	100	35.0
	2000년 이후	66	19.2
주택내 사고경험	유	222	64.7
	무	121	35.3
주택개조 경험	유	71	20.7
	무	272	79.3
		평 균	표준편차
거주지속년수(년)		17.48	15.64

3. 조사대상자의 주거공간 개조희망

1) 주거공간중 불편하여 개조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

<표 3> 개조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

(N=343)

	빈 도	백분율
현 관	90	26.2
복 도	25	7.3
계 단	226	65.9
화장실	179	52.2
욕 실	167	48.7
침 실	17	5.0
부엌, 식당	95	27.7
거 실	14	4.1
베란다, 발코니	24	7.0

*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빈도가 일정치 않음

주거공간중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공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래에 개조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증가와 더불어 생활이 불편해진 공간으로는 계단이 6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장실이 52.2%, 욕실이 48.7%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한국소비자 보호원, 1998; 홍형욱, 2005, Kwak et al., 2008)에서 주택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볼 때 욕실, 계단실, 화장실 등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경험했던 곳으로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감각·생리적 기능의 변화로 과거에 안전하던 생활공간이 위험한 문제의 환경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노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조가 필요한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거공간에 대한 개조희망 항목

주거공간에 대한 개조희망 항목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개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아 조사대상자의 69.4%가 개조를 희망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미란 외(2008)의 연구에서도 욕실 및 거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요소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63.6%,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55.4%, ‘부엌,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50.7%, ‘벽체 등을 제거하여 넓은 공간으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39.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거공간의 개조를 희망하는 것은 주택내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미끄러움방지나 문턱과 단차를 제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개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개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22.2%였으며, 전액 무료라면 개조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44.4%였다.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면 개조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27.1%였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개조인 경우 개조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고예방은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주택수리시 정부에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평균 3.974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요구수준을 나타냈다.

<표 4> 주거공간 개조희망 항목

(N=343)

	빈 도	백분율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	190	55.4
벽체 등을 제거하여 넓은 공간으로 개조	134	39.1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개조	238	69.4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	158	46.1
조명 스위치의 위치변경,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	162	47.2
부엌,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조	174	50.7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	218	63.6
주택개조 서비스		
개조를 원하지 않음	85	22.2
전액 무료라면 개조서비스 이용	151	44.0
비용을 보조해주면 이용	93	27.1
전액 유료라도 개조서비스 이용	23	6.7
	평 균	표준편차
주택수리시 정부에서 지원에 대한 요구	3.974	1.191

3) 주거공간을 넓은 공간으로 개조 희망과 관련변인

주거공간 개조희망과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희망은 조사대상노인의 일반적 변인이나 주거환경적 변인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거공간에서 ‘벽체 등을 제거하여 넓은 공간으로 개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의 월평균 총가계소득과 거주지속년수였으며(<표 5> 참조), 가족의 월평균 총가계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간확대 개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득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공간확대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가계총소득이 많을 경우 주거공간을 넓은 공간으로 개조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속년수의 경우 거주지속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공간확대에 대한 희망이 많았으며, 10년 이상인 경우는 공간확대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거주지속년수가 10년이상된 경우는 공간확대에 대한 요구보다는 시설이나 설비교체에 대한 요구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주거공간의 공간확대 희망

(N=343)

		공간확대 개조		χ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가족의 총수입	50만원 미만	76(67.9)	36(32.1)	8.865*
	50-100만원 미만	24(75.0)	8(25.0)	
	100-200만원 미만	35(50.7)	34(49.3)	
	200-300만원 미만	29(56.9)	22(43.1)	
	300만원 이상	45(57.0)	34(43.0)	
거주지속년수	5년 미만	35(51.5)	33(48.5)	9.507*
	5-10년 미만	29(49.2)	30(50.8)	
	10-20년 미만	63(67.7)	30(32.3)	
	20년 이상	82(66.7)	41(33.3)	
전 체		209(60.9)	134(39.1)	343(100.0)

* p<.05

4) 주거공간의 미끄럼 방지 개조 희망과 관련변인

주거공간에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거주지, 사고경험, 개조경험유무 등이었다(<표 6> 참조).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개조희망 정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인 경우는 미끄럼 방지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고, 여성의 73.5%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역시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1$)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78.4%가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대부분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바닥에 의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유무도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5$)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73.4%가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 없는 경우 대부분 여성노인이므로 주거공간내의 바닥상태에 의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5$) 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미끄럽지 않은 주거공간에 기거할 가능성이 높고, 읍면동의 경우는 바닥의 미끄럼방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재 외(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주거 정책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계층화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조사대상자의 주택내 사고경험 여부에 따라 개조희망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거공간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7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6> 주거공간의 미끄럼 방지 개조 희망 (N=343)

		미끄럼 방지 개조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성 별	남 성	57(35.2)	105(64.8)	3.033*
	여 성	48(26.5)	133(73.5)	
건강상태	양호하지 못함	30(21.6)	109(78.4)	8.971**
	양호함	75(36.8)	129(63.2)	
배우자	무	46(26.6)	127(73.4)	3.667*
	유	59(34.7)	111(65.3)	
거주지	읍면동	45(35.4)	82(64.6)	5.396*
	중소도시	34(23.8)	109(76.2)	
	대도시(광역시)	26(35.6)	47(64.4)	
사고경험	무	59(48.8)	62(51.2)	28.987***
	유	46(20.7)	176(79.3)	
개조경험	무	90(33.1)	182(66.9)	3.792*
	유	15(21.1)	56(78.9)	
전 체		105(30.6)	238(69.4)	343(100.0)

* p<.05 **p<.01 *** p<.001

($p<.001$). 조사대상자의 개조경험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택을 개조한 경험이 있는 경우 78.9%가 바닥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5$) 과거의 주택개조 경험에 의해 개조가 생활에 안전함과 편리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주거공간의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과 관련변인

주거공간에서 ‘벽체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46.1%로 절반이 조금 못되었으며, 손잡이 설치 희망은 성별, 건강상태, 사고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 정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인 경우는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고, 여성의 50.8%가 현기증이나 몸의 중심을 지탱해줄 수 있는 안전 손잡이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역시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1$)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57.6%가 손잡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대부분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주택내 사고경험 여부에 따라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거공간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57.6%, 사고경험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38.2%만이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과거의 주택내의 사고 경험에 의해 손잡이 설치가 생활상 안전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주거공간의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 희망 (N=343)

		벽체에 안전 손잡이 설치		χ^2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성 별	남 성	96(59.3)	66(40.7)	3.502*
	여 성	89(49.2)	92(50.8)	
건강상태	양호하지 못함	59(42.4)	80(57.6)	12.418***
	양호함	126(61.8)	78(38.2)	
사고경험	무 유	77(63.6)	44(36.4)	7.081**
	유	108(48.6)	114(51.4)	
전 체		185(53.9)	158(46.1)	343(100.0)

* $p<.05$ ** $p<.01$ *** $p<.001$

6) 주거공간의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과 관련변인

주거공간의 ‘조명스위치를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위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교육수준과 용돈, 거주지속년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8> 참조).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중졸 이하의 경우 50.0%가 조명스위치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조사대상자의 용돈의 양에 따라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에 차이를 보여 한달 용돈의 액수가 20-30만원 정도일 때 가장 개선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속년수에 따라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에 차이를 보여 10년 이내인 경우에 조명스위치 개선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8> 주거공간의 조명스위치 개선 희망 (N=343)

		조명 스위치 개선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5(50.0)	125(50.0)	3.631*
	고졸 이상	56(60.2)	37(39.8)	
용 돈	10만원 미만	55(63.2)	32(36.8)	9.206*
	10-20만원 미만	42(53.2)	37(46.8)	
	20-30만원 미만	22(37.9)	36(62.1)	
	30만원 이상	55(50.0)	55(50.0)	
거주지속년수	5년 미만	35(51.5)	33(48.5)	7.612*
	5-10년 미만	22(37.3)	37(62.7)	
	10-20년 미만	54(58.1)	39(41.9)	
	20년 이상	70(56.9)	53(43.1)	
전 체		174(52.1)	160(47.9)	343(100.0)

* p<.05 **p<.01 *** p<.001

7) 부엌이나 식당의 수납공간을 설치하거나 작업대 개조 희망과 관련변인

주거공간에서 ‘부엌이나 식당의 수납공간을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50.7%로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개조 희망은 성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조사대상자중 여성의 경우 58%가 부엌이나 식당의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노인의 경우 부엌이나 식당공간의 개선에 대해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p<.05).

<표 9> 부엌 ·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선 희망 (N=343)

	부엌 ·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선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성 별 남 성	93(57.4)	69(42.6)	8.131**
여 성	76(42.0)	105(58.0)	
전 체	169(49.3)	174(50.7)	343(100.0)

**p<.01

8) 주거공간의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 희망과 관련변인

주거공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63.6%였으며, 개조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교육수준, 거주지, 사고경험, 용돈 등이었다(<표 10> 참조).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71.9%가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대부분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바닥의 단차에 의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중졸이하의 경우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길 희망하는 정도가 낮았다(p<.01).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에 따라 문턱이나 단차 제거를 위한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읍면동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 박신영 외(2006)의 연구에서도 주택개조 의사가 도시고령자보다 농촌고령자가 더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거공간에서 문턱이나 단차가 제거된 주택에 기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주택내 사고경험 여부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거공간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6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p<.01). 조사대상자의 용돈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한달 용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개조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0> 주거공간의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 희망 (N=343)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		X ²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건강상태	양호하지 못함	39(28.1)	100(71.9)	7.095**
	양호함	86(42.2)	118(57.8)	
교육수준	중졸 이하	82(32.8)	168(67.2)	5.284**
	고졸 이상	43(46.2)	50(53.8)	
거주지	읍면동	42(33.1)	85(66.9)	9.833**
	중소도시	45(31.5)	98(68.5)	
	대도시(광역시)	38(52.1)	35(47.9)	
사고경험	무	57(47.1)	64(52.9)	9.179**
	유	68(30.6)	154(69.4)	
용돈	10만원 미만	30(34.5)	57(65.5)	8.585*
	10-20만원 미만	28(35.4)	51(64.6)	
	20-30만원 미만	14(24.1)	44(75.9)	
	30만원 이상	51(46.4)	59(53.6)	
전 체		125(36.4)	218(63.6)	343(100.0)

* p<.05 **p<.01 *** p<.001

IV. 결론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여러 위험요소와 불편함을 가지게 되어 주거공간의 개조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 주거공간을 노인의 약화된 신체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개조하게 되면 노인에게 주택내 사고발생이 적어지고 안전성이 증가하게 되어 안심하고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의 시설입소를 늦추어주고 가능한한 익숙한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므로 장기적으로 사회부양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들이 희망하는 개조공간과 개조의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주거공간중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활하기에 불편해진 공간으로는 계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장실, 욕실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볼 때 욕실, 계단실, 화장실 등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거공간에 대한 개조희망 항목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개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평면을 부분적으로 개조’, ‘부엌, 식당의 수납공간이나 작업대 개조’의 순서로 희망하고 있다. 주택개조 서비스 이용은 전액 무료라면 개조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면 개조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였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개조인 경우 개조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고예방은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주거공간에서 벽체 등을 제거하여 넓은 공간으로의 개조 희망은 가족의 월평균 총가계소득과 거주지속년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거공간에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거주지, 사고경험, 개조경험유무 등이었다. 주거공간에서 벽체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절반이 조금 못되었으며, 손잡이 설치 희망은 성별, 건강상태, 사고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의 조명스위치를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위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교육수준과 용돈, 거주지속년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부엌이나 식당에 수납공간을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절반이 조금 넘었으나, 개조 희망은 성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관심이 더 높았다. 주거공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매우 높았으며, 개조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교육수준, 거주지, 사고경험, 용돈 등이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개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대부분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바닥의 단차에 의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주택내 사고경험 여부에 따라 개조희망에 차이를 보여 과거에 주거공간내에서 사고를 경험한 경우 문턱이나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개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증명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노인들의 주거공간 개조의사가 없는 경우는 22%정도였으며, 많은 노인들이 주택의 개조를 희망하나 경제적인 제약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부에서는 기존 노인주택의 개조시 우선적으로 계단, 화장실, 욕실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개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개조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의 개조의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취급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측면에서의 주거공간 개조의사와 응급시스템 등 첨단 시설에 대한 설치의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개조의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란·이경훈(2008) 노인을 배려한 공동주택 설계 시 중요요소 도출에 대한 의식조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9), 27-35.
- 박신영·초은희·지은영(2006)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주거욕구분석, Huri Focus, 14호 1-25. 주택도시연구원
- 이성재·채준섭·유용교(2008) 전북 고령 진입층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1), 65-72.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 홍형욱(2005)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최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22.
- Kwak, Insuk & Jaesoon Cho(2008) Domestic Accidents of Older People in Korea, ENHR
www. familycareamerica.com(2007)

노인의 주거공간 개조의사에 관한 연구

홍 성 희(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인 의식주생활과 건강, 여가 등의 측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후생활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는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며, 독립적인 생활과 건강유지에 기여하는 환경으로서 중장년기에 비해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과 감각기능이 노화되므로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노인의 신체적 노화현상을 보완해주거나 적어도 물리적 안전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주거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새로운 지역이나 주거로 이동하기보다는 현재의 주거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개조는 불필요한 주거이동을 줄이면서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즉, 거주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이 노후화되고 새로운 기능과 편의성에 대한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한다면 자녀 동거나 시설입주를 대신할 수 있는 주거대안이 될 수 있다.

주거개조의 기능적 효과에 대해 실제로 노인들이 경험하고 원하는 개조의사와 구체적인 개조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주거의 기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노인주거의 방향을 가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의를 가지나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결과에서 노인들에게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은 계단과 화장실, 욕실 등이며, 결과적으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개조'와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개조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 개조희망 항목에서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는 항목, 즉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인 '욕실의 미끄럼 방지'와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는 항목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조요구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각 개조희망 항목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주거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성별, 건강상태, 주택 내 사고경험과 같은 변수는 여러 개조희망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의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부엌 개조에 대한 희망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주택 내 사고를 이미 경험한 노인들의 경우 미끄럼 방지와 안전손잡이, 문턱과 단차 제거에

대한 개조희망이 높았다. 따라서 여성이면서 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의 개조희망의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거공간특성 중 개조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주택형태나 건축년도 등에 따라서는 개조희망에 차이가 없었다. 주택형태나 건축년도는 주거의 물리적 상태나 구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조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통해 주거의 물리적 상태보다 노인의 신체적 상태나 주거경험이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조의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주거공간적 특성의 비교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의 심도를 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첫째, 주거개조희망 항목의 근거를 밝히고 이를 표준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과 비교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설비를 참고하여 표준화된 개조항목을 만든다면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개조희망 항목별 분석 이외에 전체적인 주택개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나 수리비용지원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 노인의 경제력이 주택개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료의 개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 매우 적은 것이나 정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결과를 대부분의 노인들이 주택개조를 희망하나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개조 희망 항목별 분석에서는 가계소득이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한 전반적인 항목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아니었던 점은 다각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